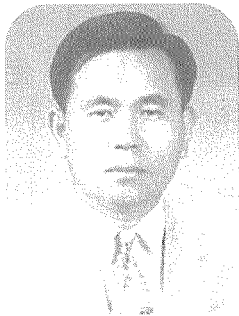


걱정되는 對日 貿易 逆調 深化



박 재 인
(본회 진흥담당 상무)

輸入先 多邊化 制度가 작년에 폐지된 후 일본으로부터 전자제품의 수입이 마치 붓물 터지듯이 暴增하고 있다.

작년에 전자제품의 對日 수입증가율이 51.4%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4 분기에도 일본으로부터 전자제품의 수입이 52.8%나 증가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25" 이상 대형 컬러TV가 212.2%, 캠코더가 275.8%, FDD가 215.9%가 증가하는 등 최근에 수입선 다변화 제도에서 풀린 품목들이 대부분 2배이상 수입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자산업의 對日貿易 收支는 '98년에 26억불 적자에서 '99년에는 35억불 적자로 逆調가 深化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의 추세로 보면 적자규모가 50억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금년에 들어와 우리 원/달러 환율은 계속 切上되고 있고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切下勢를 보이고 있어 금년의 對日 무역적자는 예상보다도 훨씬더 심각해질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對日무역 역조는 어제, 오늘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재 국산화 촉진, 對日산업 기술 협력 강화 등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개선하는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高度산업을 하기 위해 국산화되지 않은 자본재를 또 수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對日무역 역조는 그 원인이 우리 산업의 기반이 취약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부품소재 및 자동화 제조장치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면 시간이 문제이지 개선되어갈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昨今の 對日무역 역조 심화현상은 그 동안의 그것과 내용도 크게 다를 뿐 아니라 그 요인도 判異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急增하고 있는 품목은 우리가 생산 수출을 하기 위한 資本財가 아니라 不要不急한 消費財, 즉 가전 제품들인 것이다. 또 수입을 主導하고 있는 需要者도 製造者가 아닌 고소득계층의 일부 소비자들이며 그 요인도 국내 생산, 공급이 안되기 때문이 아니라 自己誇示의 外製選好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개방된 경제체제하에서 상품의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는 만큼 좋

은 상품을 구하기 위해 수입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曰可曰否할 의도는 아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된 바처럼 우리 산업의 기반이 취약해 안타깝게도 對日무역 역조가 常存하고 있고 더욱이 IMF 외환위기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소비재 수입의 급증으로 對日역조의 심화와 무역수지의 악화, 국내 관련 산업의 폐해를 유발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90년에도 워크맨,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등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관련 중소기업들이 再起不能의 타격을 받고 또 최근에도 일부 대기업이 캠코더 등의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관련 중소부품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계속 수입이 증가되면 생산 중단 품목들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줄이어 나타날 것이 분명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국민경제의 발전을 앞에서 선도해 온 우리 전자산업도 얼마가지 않아 붕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동안 대만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의 가전산업이 이러한 前轍을 밟아 불과 몇 년사이 에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전락하고만 예가 허다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업계는 물론 소비자, 정부, 나아가 일본도 새로운 對日무역 역조 심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倍前의 노력과 自制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 동안 우리 전자산업은 일본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상호발전을 도모해 왔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와 제조기계를 수입해 제3국 시장으로 수출을 하면서 발전했고 일본은 한국의 생산 수출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본의 자본재 수출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작년에 우리가 외환위기라는 未曾有의 국난을 맞아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조기에 폐지하였지만 對日무역 역조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소비재 수입까지 일시에 급증해 역조 심화가 加重되어 그 동안 쌓아온 양국의 협력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에 앞서 당사자인 우리 전자업계가 對日 역조가 더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우리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우리 업계가 아무래도 고객의 니드파악과 판매 후 서비스 제공이 훨씬 더 용이할 것이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시장이 개방된 만큼 우리 업계에 대한 환경, 에너지 등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완화해 국내의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도록 해야하며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원산지 규정이행 안전에 관한 형식검정 등의 통관관리를 한층더 엄격히 해나가야 한다.

또, 소비자들도 상품 선택에 있어 막연한 브랜드 이미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가격, 품질, A/S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慧眼을 가져야 한다.

아직 우리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있고 더욱이 올해는 원유가 상승, 원화절상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 목표달성에 非常이 걸려 있는 만큼 소비재수입 증가로 對日 무역 역조가 심화되지 않도록 倍前의 노력과 협력이 있기를各界에 간곡히 호소한다.